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생명의 복음

친구 (요 15:13~15)

일도 생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마음으로 헤어지곤 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셨다. 그들은 개인인데 국가든 간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는 원수가 되는 세상의 현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실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로 하셨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걷는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가? 성육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마굿간에서 태어났었다. 십자가! 그들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내가 싫어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요 3:16).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요 14:2,3).

예수께서는 정말 우리의 친밀한 친구가 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제록!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신다. 원래 친구란 상대방의 개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를 의미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히 4:15)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히 11:28).

예수께서는 왜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

고 애를 쓰시는가?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구가 되셨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대로의 유익을 얻기 위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고 선택해서 친구를 삼기도 한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마 11:19; 눅 7:34). 그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는 친구이시다(롬 5:6,8,10). 심지어 그들은 사형수까지도 친구로 삼아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는 친구이시다(눅 23:43).

예수의 사랑은 믿음만한 것인가? 그렇다. 그들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며 끊임없는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한계적이며 절로처럼 깨지지만,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었다(히 13:5).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친구가 되시는 분!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렸던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분!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세상의 환난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신다. 아주 오래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풀뿔을 속을 거니웠던 것처럼 환난 속을 함께 걸자고 하신다(제 7:14).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겠다고 하셨다(요 16:33).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 그 사랑스러운 친구 예수님을 박대하지 말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할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김성관 위임목사)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2006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 안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요 1:14).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공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딤후 3:7)라고 말한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방법들은 당장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결국은 진리와 상관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곧 개강할 2006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교육훈련원에서는 매년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고 교사, 찬양대, 전도대원으로서의 전력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육에 철저히 참여해야 할 이유는 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골 4:9). 특히 수요 성경공부에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성경 전체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참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교사와 찬양대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각각 교사 양성부와 찬양대 양성장에 참여하십시오. 아직도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전도대원 훈련을 받으십시오. 성경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지에게 있을지어다"(베후 3:18).

수요 성경공부

교육 기간: 9월 13(수)~11월 29(수), 총 12주

강의 시간: 매 주요일 오후 3:00~4:30, 저녁 8:30~10:00

강의 내용: 오호반 / 시가서(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서신서(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407호)

저녁반 / 예언서(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교사 양성부

교육 기간: 9월 10(월)~11월 26(월), 총 12주

강의 시간: 매 주일 오후 3:00~4:30 (제1교육관 301호)

찬양대원 양성부

교육 기간: 9월 10(월)~11월 26(월), 총 12주

강의 시간: 매 주일 오후 3:00~4:30 (베다니홀)

전도대원 훈련

교육 기간: 9월 13(수)~11월 1(수), 총 8주

강의 시간: 매 주요일 오후 1:30~2:30 (제1교육관 407호)

교육에 관한 문의와 신청은 교육국☎ 473으로 하십시오.
교육국에 신청자가 비자되어 있습니다.

NOTHING TO GIVE

⁽⁸⁾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saying, ⁽⁹⁾ "Arise, go to Zarephath, which belongs to Sidon, and stay there;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there to provide for you." ... ⁽¹⁵⁾ So she went and did according to the word of Elijah, and she and he and her household ate for many days. ⁽¹⁶⁾ The bowl of flour was not exhausted nor did the jar of oil become empt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which He spoke through Elijah.

(1 Kings 17:8-16)

A severe drought in the land of Samaria, brought on by Elijah's prayer to the Lord to stop the rain (v. 1), caused a Gentile woman to notice that death was near. She was a widow with only one son, and their food supply had finally dwindled down to a last meal. God came to this woman in her situation and changed it. She was very, very poor, no riches at all, and she was very, very depressed, no joy at all, but God changed everything. This Gentile woman knew Israel's God. Somehow, and I do not know how, she became a believer in the Jewish God. She cried out to the Lord God and He came to her. Whereas depression closes you in, her faith led her to go out and collect sticks to cook what little she had left. She was waiting for somebody from Israel to visit her. God told Elijah, "Arise, go to Zarephath, which belongs to Sidon, and stay there;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there to provide for you"(v. 9). God came to this woman in her dreadful situation and asked her to take care of one of His servants. What a wonderful ministry!

Sometimes God sends people your way. If you do not have anything, like this widow, and your sent visitor asks you for something, what are you going to do? Most people will say, "Get out of here, I do not have anything." The widow truly had nothing, but Elijah asked her first to bring him a cup of water. "So he arose and went to Zarephath, and when he came to the gate of the city, behold, a widow was there gathering sticks; and he called to her and said, 'Please get me a little water in a jar, that I may drink'(v. 10). Getting someone a "little" water, even during a time of drought, is not too much. As she went to get the water, Elijah also asked her, "Please bring me a piece of bread in your hand"(v. 11). Now, things get difficult. For most people, this second request would be too much. This absolutely requires faith. The widow knew she only had one small meal left, barely enough for her and her son, and she honestly confessed to Elijah, "As the Lord your God lives, I have no bread, only a handful of flour in the bowl and a little oil in the jar; and behold, I am gathering a few sticks that I may go in and prepare for me and my son, that we may eat it and die"(v. 12). This Gentile widow confessed her exact situation; she did not exaggerate. She spoke the truth, and the truth became a blessing.

Elijah told the widow, "Do not fear; go, do as you have said, but make me a little bread cake from it first and bring it out to me, and afterward you may make one for yourself and for your son"(v. 13). This request was a test, checking to see whether she had faith. Was she really a believer? She did as he asked, but with fear. Elijah specifically told her, "Do not fear," but fear somehow always creeps in. After the Fall, humans feared the Lord. Adam said to God, "I heard the sound of You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myself"(Gen. 3:10). Sin causes the human heart to fear. We have all kinds of fear. We are rich in fear over health, family, business, money, kid's education, and you name it issues. Elijah, God's servant, told the widow not to fear, to serve God first and then herself. God must always come first, not yourself or your spouse, not children, and certainly not your material belongings. Matthew 6:33 says,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This Gentile woman had a choice to provide for God's servant. Her decision was voluntary. She could give or not give her last meal to Elijah. She was not a Jew, but she was a believer. She listened to God. I hope you listen to Him also. God's servant told her, "For thus says the Lord God of Israel, 'The bowl of flour shall not be exhausted, nor shall the jar of oil be empty, until the day that the Lord sends rain on the face of the earth'"(v. 14). What a good news! It was more than she expected. She obeyed God's command, as difficult as it was, and God took care of her future. This blessing came through her hands. She could take the flour and oil and make bread or not. She could believe God's word or not. She had to forget the normal way things worked and start praising God for His miracle. She never met or fellowshiped with Elijah before, but she believed God and provided for him, and an unbelievable blessing came to her.

The Gentile widow had hardly enough food for two, nothing extra. She sincerely conveyed to Elijah her real situation, which was that she literally had nothing to offer him, but God did not agree. He told her that her food would never end until the drought was over. Every time she cooked a meal, she had to sing and give praise to the Lord God for the blessing. When people came over to visit, they saw how little she had because her jars were almost empty, but she saw the blessing in every meal. She worshipped God because she believed. During this famine, in her situation, with no husband, a child to raise, and a guest, people had to think she was crazy. This is the picture of real faith. If you just look at this earth, which has a bunch of depressing problems, you can fall prey to your circumstances, but if you look at the Lord, you will praise Him. Do you trust Him? Jesus teaches us to pray,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re you happy with that?

Where is your faith? Lamentations 3:22&23 say, "The Lord's loving kindnesses indeed never cease,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I believe this woman sang this song at every meal. My dear friend, what kinds of things do you fear? Why are you afraid? Change your fear to faith by first sacrificing to God, and He will change your life eternally. Amen. 

다음 주일 설교

드릴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경하게 하였느니라” “...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8~16)



김석관 목사

절망뿐인 상황 속에

비를 멈춰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대로 사마리아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들었습니다(1절).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한 이방 여인은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져 마지막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재산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기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칠 때 여러분들은 움작 달짝하지 못하지만 여인은 믿음으로 일어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요리할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찾아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경하게 하였느니라”(9절).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당신의 종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다

때때로 보내신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과부처럼 아무 것도 없는데 드넓었던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없으니 여기에서 나가지요.” 이 과부는 정말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에게 먼저 물 한 잔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줌은지라 이에 불려가 로되 청컨대 그곳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10절). 가뭄으로 물이 귀한 때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을 ‘조금’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인이 물을 가져러 갈 때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청컨대 내 손에 딱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11절). 이제 일이 더 곤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요구 사항은 너무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단지 한 개 먹음 양식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려져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겨우 한 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되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조금도 부족하”(12절).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다. 그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진실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13절). 이 요구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녀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그녀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두려움은 항상 조용히 잠재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뱀으로 두루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건강, 가족, 사업, 돈, 자녀 교육 등 우리는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논쟁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녀 자신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지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33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택하라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줄 수도 있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14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녀의 손을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밀가루와 기름을 취해서 떡을 만들 수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엘리야를 만났거나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축복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 이방 여인에게는 두 사람이 먹기에 부족한 양식이 남아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것도 대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엘리야에게 솔직히 알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녀에게는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배에 있는 항아리를 보면서 그녀가 가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가뭄에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손바닥까지 거두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절망적인 문제들로 가득찬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3:22,23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의 자비와 공평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는 이 여인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지 믿습니다. 사방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

성경 속의 여인들



가난한 그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 때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돌봐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의 이름이나 나이, 외모에 대하여, 그리고 그녀에게 자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편을 잃은 가난한 과부였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의 호의는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 길이 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 위에 쌓아 두고 있는 의식주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를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 가난한 과부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돌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예배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평계들을 가지고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입은 옷이 너무 초라해서, 아니면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성전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에게 비해 자기들이 준비한 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가 꺼려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만한 일당을 위해 일 주일 내내 노동하느라 피곤에 지쳐서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부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돈을 거저 기부하는 것이 싫어서 성전 말고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탐욕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혹은 예배 시간이 유리한 사업 경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구실이 어떠한 간에 믿음으로 볼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가난뱅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믿음에 부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약탈한 지갑도 성전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삶의 환경도 그녀의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위해 성전을 향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2절). 과부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 다. 인용할 것에 쓸 돈밖에 없기 때문에 헌금할 유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가난한 그 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적기 때문에 바칠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전 두 닢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께서는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녀의 드리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랑스런 과부의 마음에는 겸손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은연중이라도 교만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함으로 겉으로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명목으로 생각하고 교육받았습니다(눅 20:46,47).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랑하고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동안 그들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내면을 설향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경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이 과부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자기가 소유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 중 가장 큰 헌금이었습니다. 하늘의 계산법에 따르면 그녀의 헌금은 모든 사람들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4절).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에 따라 우리의 헌금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바쳤을 수도 있지만,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 과부의 손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드리는 믿음은 우리에 여전히 소중하고 있는 것에 의해 드러납니다.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었습니다(눅 12:15).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소유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벧전 4:11).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가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는 구걸할지 모르나 생명에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믿음대로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그에게 우리를 드립시다. 그 믿음이 사랑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박덕연 (장로, 전두 2부장)

매 주일 12시 30분, 제1교육관 407호에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50대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를 부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기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는 넘치는 보혈만이 소망이 된다는 진리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저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만남, 구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아주 극적인 만남이요, 믿음과 불신앙의 만남입니다. 이 같은 은총의 만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장년 2부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총이 넘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더욱 진도에 힘쓰며 매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년 2부는 금년도에 500명 출석을 목표로 하며, 다음 주일(8월 27일)을 '총동원 전도의 날'로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복음이 필요한 50대 성도들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장년 2부의 성도들이 이 영혼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귀한 총동원 전도의 날에 50대의 성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십자가가 주는 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저희들은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이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삶(골 4:1)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로 하나 된 삶입니다. 또한 죄에 얽매어지지 않게 생활을 버리고 십자가가 주는 은총으로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나의 뜻과 주장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는 자願스럽게 바리새리 믿습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엡 4:1).

돌짝처럼 보이는 이 발에서도...

2명씩 조를 짰 뒤 복음 전할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주시며 "각자 택시를 타고 가라"는 팀장님 말씀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성령님만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은 채 '어떡하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은 열려했던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되었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점점 담대해져 갔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영립주택 같은 곳에서 5명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뜸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살펴보니 목에 불상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서 나오려는데 한 여인이 "그게 무어냐?"고 궁금해 하기에 "예수님께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는데 들어 보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영집기도까지 하며 얼굴이 환해져 이롭까지 적어 주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돌짝처럼 보이는 발에도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음에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영선(집사, 8교구)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시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하였다. 가능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쉽게 하고 영집기도까지 하도록 하였다. 시내에서의 사역을 마친 뒤 축조전도를 하였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환한 미소로 잘 받아들였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짧은 언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컸다. 우리는 아쉬움을 컸질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였고, 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여기에는 "불문교와 통일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며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현지 운전기사의 통역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복음이 할머니께 잘 전달되고 또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 지역이 예수님을 믿는 동네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남성인(권사, 16교구)

무서운 얼굴이 밝은 얼굴로!

가는 곳마다 마을 중심에는 정교회가 있었다. 그들에 비해 우리의 외모는 보잘것없고 자신이 없었고, 두려움만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힘 입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저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면, 너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며 복음을 거부하였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한 번은 성령님께서 사람이 없는 뒷골목까지 보내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였다. 또 무섭게 생긴 중년 남자에게 다가가기에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중년 남자가 내게 다가가 전도지를 달라고 하였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영집기도를 드렸다. 성령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었다. 그의 무서운 얼굴이 웃는 밝은 얼굴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더욱 확실히 깨달았고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회개하였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육토 밭에 떨어져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한다.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황정희(권사, 2교구)

지산 주도착한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7일(월) ~ 8월 15일(화)	1교구 6지역	김대웅
8월 10일(목) ~ 8월 18일(금)	대학부 36팀	이신동
8월 10일(목) ~ 8월 19일(토)	5교구 4지역	박준문
8월 11일(금) ~ 8월 19일(토)	12교구 2지역	김영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부족함으로 묻혀 있는 저를 이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다니요!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저를 선교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름 밑 같이 모여드는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천양을 통해 그들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한 뒤 담대히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영집기도문을 따라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주님 들었지요? 그들의 응성을! 주님 보셨지요? 그들의 눈물울음!

주님 아시지요? 그들의 마음을!

때론 우리가 탄 봉차고를 둘러싸면서 적대감을 표현하는

무슬림 청년들이 있어 잠시 두렵기도 하였건만...

"은총의 예수님!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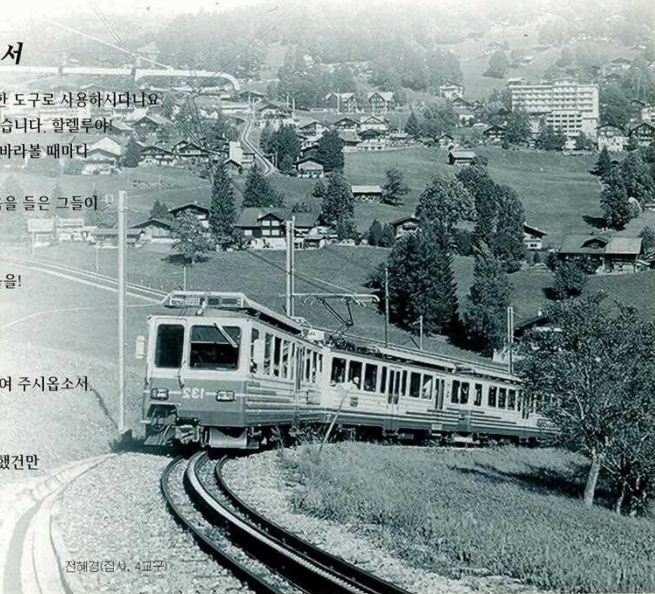
선교를 가기 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수 없이 듣고 다짐했지만

순간 순간마다 미혹에 흔들리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죄인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예수님!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전혜경(집사, 4교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여름 수련회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난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 이런 저런 이유로 피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 단기성교에 참여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망설임 없이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제일 큰 목표는 나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었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였다. 또한 친구들과도 더욱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총련기도원에 아침 일찍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더운 날씨에 물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선생님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 자절로 기도의 문이 열렸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였다. 수련회 전부터 정리해 놓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나 하나 주님께 구하였다. 기도하면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매여 살면서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였다. 진실로 회개하니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정말로 주님께 감사했다. 이처럼 1박 2일의 수련회 동안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했다.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어 정말 감사했다. 김은혜(충동 2부)

사랑하는 아들, 중혼이에게



중혼이하고 아바하고 세상에서 만난 지 700일이 좀 못 되었구나. 그러고 보니 그 동안 편지 한 번 못 보냈네. 이만해, 중혼아! 너를 보면서 내가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너의 양육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아바보다 앞선 아바들이 아무리 그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야. 결국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니까 아바는 그저 지켜보고 기도할 뿐이란다.

사랑하는 아들 중혼아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너무 나약하여 믿을만하지 못하단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해. 엄마와 함께 있는 그림 성경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지? 다니엘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니 사자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왕도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법까지 바꾸었지! 아바는 다니엘 이야기를 읽어 주면서 우리 중혼이도 다니엘처럼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그리고 그렇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아바도 간절히 기도했게!

그리고 중혼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야 할 거야. 그렇지만 그 많은 지식의 근본은 성경에 있음을 알아야 하단다. 아바도 어렸을 때 잡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가 읽어 주셨던 성경 구절과 상상했던 장면들이 떠오른 한다. 세월이 지나수록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참 진리가 됨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더욱더 많이 생기곤 해. 주님이 주신 말씀은 지식의 근본에 놓고 다른 지식을 붙여나가야 해. 그래야 지혜가 더 커지고 많은 일을 낭비 없이 해 낼 수가 있단다. 사실 아바는 널 보면서 네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아바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밥 먹을 때면 '하나님' 하고 손을 모으는 너를 보면서 너한테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고 또 아바 생활을 회개하단다. 울며 떼를 떤 아바도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할매에게서 주님께 계시니 우리 아버지 주님께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자구나. 아바도 우리 가족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힘쓸 테니까. 착한 아들이야. 사랑해!

이병도 집사(영아부, 이충훈 아바)

복음이 있기에 넘치는 기쁨!

부족하고 나약한 이 죄인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신 은혜가 크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다니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저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날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어느 가게의 여주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던 그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기까지 계속 전도하여 마침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가슴 벅찬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여 교회에서 만나기로 한 여대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어 기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주변 전도의 날,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위험 천만한 고비를 넘기며 장대비 속을 달려 일산에서부터 3시간이나 걸려 교회에 도착하였지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지역 범침 전도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어느 당노 환자가 "알고 지은 죄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떠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며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성령님이 재게 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영준(집사, 12교구)

십자가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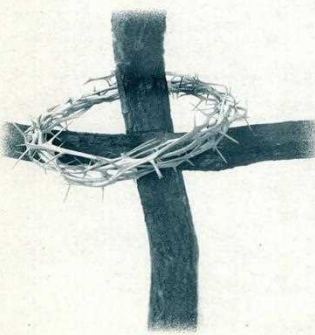
십자가의 사랑, 크고도 위대한 사랑
낮은 자가 높임 되어 주께 영광 돌리세
병든 자가 치유받아 회복되고
낙심된 자 일어나 주의 성호 찬양하네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끝없는 사랑일세
자기를 부인하라 하네 영원한 길이기에
내 힘과 결심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선 순종이 기적이고 축복이란 말일세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하네
예수님이 하신 일 주의 자녀 할 수 없는 말 뿐 말인가
십자가의 사랑 힘을 땀 땀 땀 못함 없게 되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기적과 예수의 사랑 체험하게 된다네

김영구(집사, 3교구)



교회 탐방 중등부 선교팀

작은 불씨가 일으킨 복음의 불길!



중등부 선교팀은 중등 1년부터 중등 3부까지 각 학년별로 구성 되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 고 돌아왔다. 바로 전 날 선교교로부터 도착하여 무척 피곤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전한 것이 생명이었고, 이들이 품고 온 것이 새 생명이었기에 성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한없이 약해 보였지만 이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이들의 고백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했다.

선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원진, 중등 1부)
지난 번에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김은혜, 중등 2부)
저도 지난 번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는 저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선교에 저력했습니다. (김유용, 중등 3부)

선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은?

준비하는 과정들이 모두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영혼을 사할수가 되었습니다. (이태기, 중등 1부)
자기를 꼭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최유연, 중등 2부)
영혼 사장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김민정, 중등 2부)

감히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은혜, 중등 2부)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유용, 중등 3부)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 아니라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주연, 중등 3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는 않으나 온도스러웠는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고해졌습니다. (박연경, 중등 3부)

나름대로 풍부한 경험과 언어 지식은 저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할수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이성호, 신학생, 중등 3부)

선교 중에 넘쳐난 은혜는?

예수님께서 피 땀을 흘린 이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들이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에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원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사역할 때는 비가 그쳐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태기)
열매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가끔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이 들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영은)
처음에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강박해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니 고난 중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예진, 신학생, 중등 2부)
세밀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우리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에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너무 답답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김은혜)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학생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성호, 신학생)

한 집에서 만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한 뒤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을 떠나면서 창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김유용)
사역 전 날, 다음 날 계획들을 세우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였고 항상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뜨거웠습니다. (박연경, 신학생)

길을 가다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강도하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저의 팀원 한 남학생이 그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였고 영접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영혼을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박연경)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선교를 할 때만 해도 제가 무언가 잘나서 선교를 하는 중일었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자신을 부인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김유용)
모든 면에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주연)
선교지의 영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은혜)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했습니다. 또한 많이 통하지 않아서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김예진, 신학생)

중학생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사!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중등부 선교팀이 한 것은 이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능했던 선교에 쓰임받은 중등부 학생들의 심령에 계속 예수님의 은전이 남도록 기도해야겠다.

(편 집)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찬미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할 뎡니다."

심각하는 은혜로 믿을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언 십수 년이 지나건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으로서 감히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세상의 유흥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나는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며, 회개하기는 커녕 때로는 여러 가지 일에 주님을 원망하며,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단가? "옛 아람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마음을 주주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분해도 날 평안케 하소서."

얼마 전, 단기선교를 간 우리 팀은 공산주의 사상과 불신에 젖어 있는 척박한 땅을 밟고 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상한 마음을 달래며, 캄캄한 새벽에 불교 사원의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주여! 이 불쌍한 민족이 배울여 주신 은혜로 천국을 사모하게 하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을 안에서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 주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찬양한다. "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을 계시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이인진(집사, 알렐루야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01	김인복	1 장년2부		2213	유성열	16 장년1부	유용영(6)
2202	김해연	19 청년1부	이근규(6)	2214	윤태순	1 청년2부	심재훈(15)
2203	함기현	3 청년2부	이복희(3)	2215	황산	19 외신부	임현진(1)
2204	장경은	15 청년2부	김소희(19)	2216	박승근	7 대학부	최문실(1)
2205	장진현	15 청년2부	김소희(19)	2217	이우연	19 대학부	손기영(6)
2206	조민지	19 청년1부	박경래(11)	2218	정소훈	19 대학부	정성수(12)
2207	마르타리타	19 외신부		2219	조홍두	1 장년1부	구원실(1)
2208	마르토르	19 외신부		2220	이 요	1 청년2부	
2209	김영도	7 장년1부	박산옥(7)	2221	남효진	19 중등3부	송영실(3)
2210	부려비나	19 외신부	손기영(6)	2222	홍정화	19 외신부	김대훈(1)
2211	김복식	8 소망부	김은숙(8)	2223	김옥선	19 외신부	김대훈(1)
2212	이기	19 외신부	최은희(16)	2224	김옥희	9 장년2부	최형철(3)

* 중환교회와 한 구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지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종대 12구	정원민 신2배비 12구	박기인 신2배비 12구	류병희 신2배비 12구	김영진 신2배비 12구
여국진 신2배비 12구	안영철 신2배비 12구	나용영 신2배비 12구	정진호 신2배비 12구	고광호 신2배비 12구
위광환 신2배비 12구	김기환 신2배비 12구	장 훈 신2배비 12구	임원희 신2배비 12구	이재현 신2배비 12구
최종철 신2배비 12구	하용철 신2배비 12구	안지현 신2배비 12구	장승신 신2배비 12구	양재현 신2배비 12구
이승진 신2배비 12구	이성진 신2배비 12구	이재영 신2배비 12구	이경준 신2배비 12구	이창호 신2배비 12구
김준희 신2배비 12구	홍수인 신2배비 12구	황진성 신2배비 12구	이성훈 신2배비 12구	김태호 신2배비 12구
유재진 신2배비 12구	강영구 신2배비 12구	장선영 신2배비 12구	김철규 신2배비 12구	

■ 여전도사

윤인숙 신2배비 12구	한영준 신2배비 12구	김진익 신2배비 12구	홍순애 신2배비 12구	이옥자 신2배비 12구
김말자 신2배비 12구	안대순 신2배비 12구	김경연 신2배비 12구	장덕희 신2배비 12구	최문자 신2배비 12구
전은희 신2배비 12구	김정자 신2배비 12구	김경희 신2배비 12구	이복순A 신2배비 12구	류진희 신2배비 12구
한성일 신2배비 12구	임덕주 신2배비 12구	장경미 신2배비 12구	옥미자 신2배비 12구	이복순B 신2배비 12구
강호조 신2배비 12구	전영희 신2배비 12구	이혜숙 신2배비 12구		

■ 찬양감독 가문성 김원섭

■ 찬양지휘자 서준식 김원섭

■ 찬양목수자 김소연 ■ 찬양인주자 장영희

■ 성 교 사 송환하